

함께 짓는 DIT 마을재생의 미래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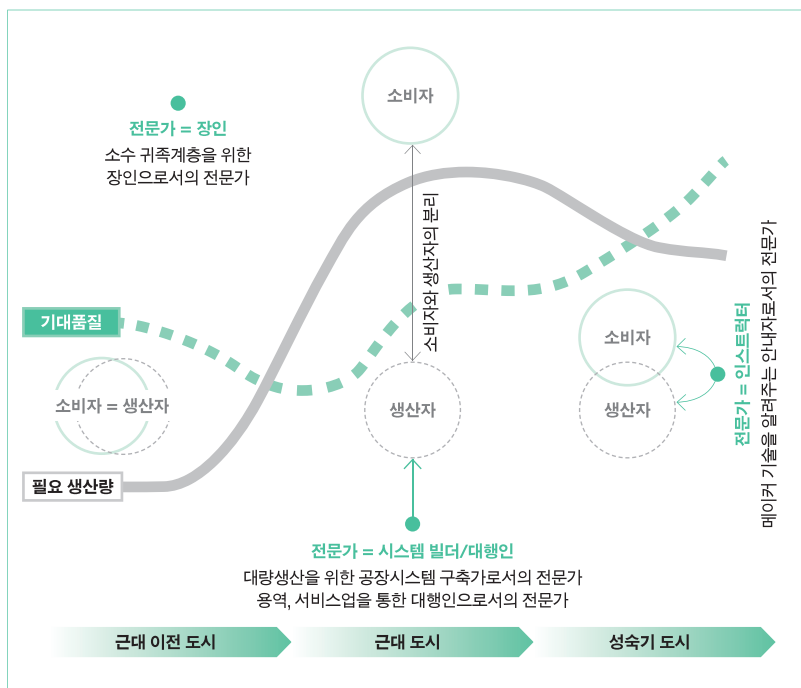
지은이의 귀환과 의식주의 재편

어느새 짓지 않는 삶이 당연히 됐다. 우리는 언제부터 의식주를 전문가로부터 ‘구입’했을까? 근대 이전까지 소비자는 곧 생산자였다. 필요한 음식과 옷, 집은 소비자인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 초가집을 지어 살며 입을 옷을 짓고 농사지은 쌀로 밥을 지어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다. 의식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은 귀족들의 사치품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근대 사회로 접어들며 상황은 변한다. 근대의 인구급증으로 대량생산이 필요해지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는 차츰 멀어지다 어느샌가 완벽히 분리돼 버렸다. 방망이 깎던 노인의 역할은 공장과 시스템이 가져갔다. 좋은 품질보다는 많은 양의 빠른 공급이 중요했다. 전문가의 역할은 직접 짓던 장인에서 공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스템 빌더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혹은 용역,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건축가, 요리사가 되어 바쁜 주민을 대신해 의식주를 빠르고 저렴하게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중은 의식주를 직접 짓는 대신 간편하게 구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인구절벽, 생산과잉의 시대에 접어들며 의식주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변화의 요인은 두 가지이다. 대량생산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경험과 재미를 찾는 밀레니얼(millennial), Z세대 소비자가 등장했다. 인구감소로 생산량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는 생산과정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밀레니얼 소비자는 의식주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며 느끼는 새로운 경험과 윤리적 가치를 추구한다. 밀레니얼의 DIY 문화는 완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했던 부머세대들의 벽난로 앞 뜨개질이나 집수리 DIY와 달리, 성과물에 자기다움과 창의성을 담아가는 과정을 소중히 한다. DIY와 크래프트, 메이커 문화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공장제 생산품 같은 획일적 물건이 아닌 소비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생산 방식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렇게 성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에 올리며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한다. SNS는 일부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DIY, 크래프트 문화를 대중에게 확산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DIY로 재편된 세계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생산 활동의 대행인에서 안내자로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 비용을 받고 대신 지어주는 사람에서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나 단체 워크숍을 통해 직접 짓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있다. 수많은 요리 유튜버, 셀프인테리어 (DIY) 유튜버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요리사의 기예를 뽐내던 기존 TV 스



시대별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도와 전문가의 역할 변화

타 셰프와 달리 SNS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일반인을 요리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에 치중한 백종원이 뉴타입 전문가의 예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제 또 한 번 ‘지은이’가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다. 이 엉뚱한 공간을 지은이가 누구인가, 이 윤리적인 농작물을 지은이가 누구인지, 창의적 위트를 담은 옷을 지은이가 누구인지 찾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인 역시도 창의적인 지은이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 한다. 대중은 길잡이가 되는 전문가의 안내로 다시금 지은이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Do you wanna build it together? 우리 같이 지을래?

전문가의 역할이 안내자로 변할 때 건축가는 어떤 모습이 될까? 집을 지을 때 ‘건축가’를 찾게 된 지는 불과 200년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화 이전까지 왕권이나 종교를 위한 기념비적 건축은 종합비타민처럼 미술, 조각,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류성룡, 원효대사, 정약용 등의 융합형 전문가가 주도했다. 대부분의 일반 생활건축은 거주자가 목수와 함께 직접 지었다. 그러다 근대에 들어 도시화로 크고 많은 건축물이 필요해 지자 건축의 영역과 공정은 세분화, 분업화 되어 비로소 건축가라는 전문직업이 등장한다. 우리는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대신 소비자는 건물을 짓는 행위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가 그룹 어셈블의 Yardhouse 작업과정(좌)과 어셈블스튜디오 작업실 내부 모습(우)

어셈블은 건물 시공은 물론 외벽타일 굽기, 칠하기와 불이기도 직접 수행했다.

출처: 어셈블 홈페이지(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우)

인구감소가 불러온 입고 먹고 거주하는 방식의 재편은 건축가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 응답으로 최근 많은 젊은 건축가들은 근대시대에 확립된 건축설계의 틀 안에 머물지 않고 건축업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어반베이스, 스페이스워크처럼 프롭테크(Proptech)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블랭크, 로컬스티치, 론드리프로젝트처럼 로컬 비즈니스(local business)의 영역으로 확장한 도시재생 스타트업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건축외연의 확장만큼 건축영역 내부에서의 융복합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물과 기름처럼 층층이 분리돼 있던 공정이 경계 없이 유화되고 있다. 2015년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상하며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영국의 어셈블(Assemble)은 건축 내부단계의 유화현상을 잘 보여준다. 본인들 작업에서 전통적 개념의 건축 디자인은 10% 미만이라 말하며, 공간기획, 설계부터 건축재료 만들기와 시공, 공예, 운영단계를 자유롭게 횡단하고 있다. 어셈블은 작업실 공간의 많은 부분을 건축재료 실험공간으로 할애하고 다양한 자재의 활용 방법을 연구한다. 공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주민들은 물론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행인까지 포함시켜 같이 짓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노력한다. 어셈블은 10년째 매일 점심을 멤버들이 함께 직접 지어 먹는 것이 회사 문



분절된 절차에서 유화된 절차로 재편되고 있는 건물 짓기 과정

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정도로 함께 짓는 DIT(Do It Together) 문화를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

어셈블의 작업에서 보이듯 앞으로는 바통을 넘겨주듯 분절됐던 건축절차가 한데 뭉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축이 아닌 재생 건축에서는 도면설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장에서 건축가와 시공인, 사용자가 마치 재즈음악의 잼연주처럼 즉흥적인 판단을 이어가면서 공간을 만드는 과정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시공현장에서의 현장 즉흥설계와 재료에 대한 이해, 간편한 시공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지만, 건축가가 기존 업무영역의 틀을 벗어나 기획, 시공, 운영, 교육 영역을 아우르는 업무범위 확장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건축가, 시공인, 건물주, 운영자가 현장에서 하나의 팀으로 모여 창의적 소통으로 공간을 완성시켜가는 방식이 DIT 마을재생이다. 사회는 건축가가 DIT 마을재생에 적합한 종합예술인으로 되돌아오길 기다릴지도 모른다.

다 좋은데 아파트 공화국에서 DIT가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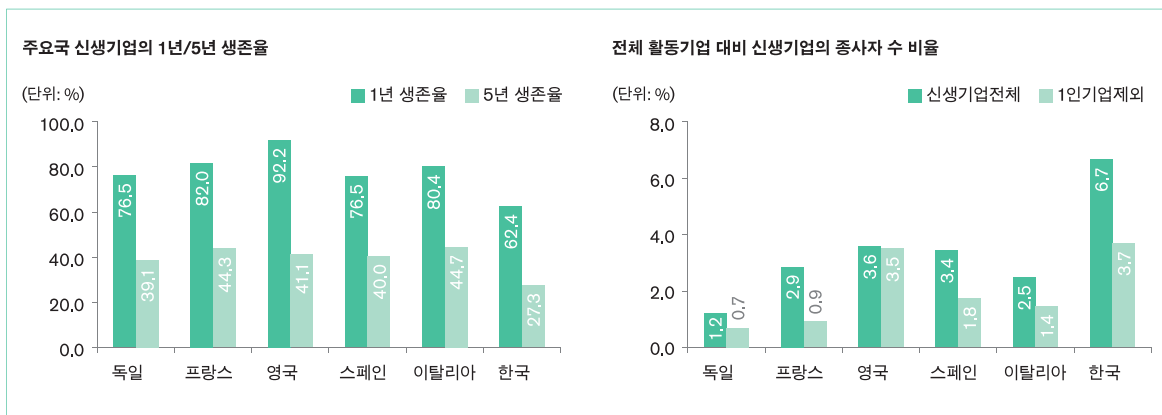
목조주택과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미국, 일본과 달리 인구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은 DIT 문화의 정착이 늦은 편이다.** 건축자재와 DIT 인테리어 도구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미국의 홈디포는 1978년 설립되었고, 생활용품과 DIT 공구를 판매하는 도큐멘트는 일본에서 1976년 설립되어 일본 내 5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대형 DIT 인테리어 전문점 에이스홈센터가 2018년 오픈해 3개의 매장만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DIT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택이 아닌 카페, 서점 등의 소규모 상업공간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비율은 25.4%로 미국 6.3%, 캐나다 8.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영국 15.4%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 어셈블. Jane Hall 대표 인터뷰(2019.7.1.)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가구(1998만 가구) 가운데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001만 가구로 50.1%를 차지했다. 단독주택은 32.1%를 기록했다(손혜용 2019, 8월 29일 기사)

*** 윤효원(2019, 6월 21일 기사)



신생기업의 생존율 국가 비교

출처: 김경훈(2017),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현황 점검, p.4.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생존율은 매우 낮다. 국가별 기업 생존율을 보면, 한국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EU 주요국의 6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전체 기업에서의 신생기업 비중은 2~4배 높아 창업과 폐업이 잦은 특징을 볼 수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문을 닫은 기업은 77만 7,000개였다. 이 중 소상공인 업장은 76만 5,000여 개로 전체 폐업 기업의 98%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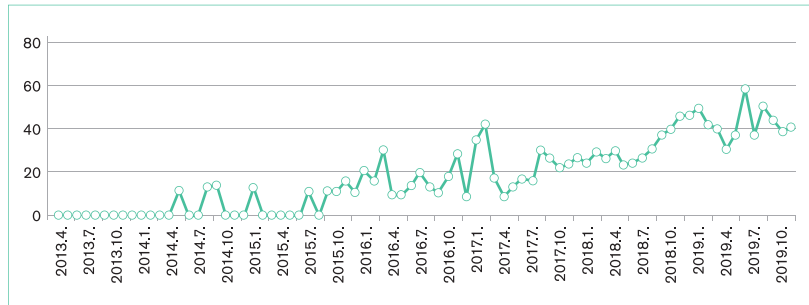
높은 창업률과 폐업률은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모든 직장인의 최종 정착지는 치킨집이라는 농담이 있듯이, 많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자기 보유금으로 충당하는 비중은 30%에 그쳤고 70%는 외부조달로 충당했다.**외부조달 중 은행 또는 캐피탈 등 금융권 대출을 통해 창업비용을 조달하는 비중이 38.4%(101명)로 가장 높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이 17.5%로 그 다음이다.

커피숍 창업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은 전체 창업비용의 86.6%를 차지한다.*** 커피숍 창업을 위한 평균 창업비용은 1.2억 원이었으며, 창업비용을 세분화해보면 ‘인테리어 등 기타비용’이 1억 546만 8,000

* 김은경(2017, 10월 12일 기사)

** 최승진(2012, 3월 12일 기사)

*** 김하나(2018, 5월 10일 기사)



DIY 건축(셀프인테리어) 유튜브 검색 트렌드

출처: Google Trends (검색일: 2019.11.29.)

원(8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의 2배 수준으로 높은 데 비해 기업 5년 생존율은 EU 국가의 70% 수준으로 낮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상공인 창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입비용 중 86.6%를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인테리어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전국인테리어목수연합회는 2017년 5월 1일 인테리어 목수 임금을 반장 및 팀장은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테리어 목수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10% 일괄 인상했다.

이 때문에 DIT, DIY(셀프인테리어)의 방식으로 공간창업을 시도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 생산자인 시공인도 대행인에서 벗어나 안내자로서의 전문가로 역할을 확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유튜브를 통한 DIT, DIY 전반에 대한 안내가 201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수 20만 명을 넘긴 폴라베어를 필두로 탐목수, 목수김동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고리닷컴, 오늘의집 등 DIT, DIY공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시공인의 영역을 일반인 교육과 DIT로 넓혀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오롯컴퍼니, 여기공, 빈집은행, 망치디자인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 장형우(2016, 3월 8일 기사)

누구나 함께 지을 수 있는 DIT 마을재생을 위해

누구나 어디서든 원할 때 원하는 공간을 함께 지을 수 있는 DIT 마을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을 교육, 제도, 거점공간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로는 ‘Thinker’가 아닌 ‘Doer’를 길러내기 위한 DIT 교육의 도입이다. 많은 부처와 지자체에서 노력 중인 도시재생, 지역혁신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민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나 지역의 구상을 함께 고민하는 Thinker 양성에만 머물러 있다.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현실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민교육을 위해서는 Thinker로서의 주민교육과 더불어 Doer로서의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재생과 관련한 빈 점포 창업, 공공거점 조성은 DIT 마을재생 교육을 적용하기 좋은 사업이다. 공간조성을 위한 초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자신만의 창의력을 담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DIT 마을재생 방법으로 공간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고, 공간에 대한 애착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은 리노베이션 이후에도 크고 작은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유행하는 사업 아

DIT 페스타 팀 구성 및 추진체계



로컬미디어카페(SUPER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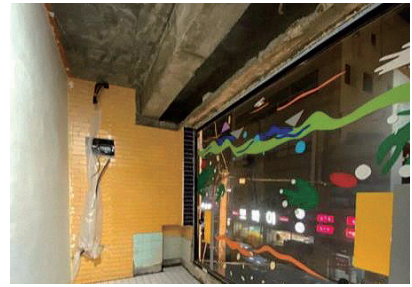
작업 전(좌), 작업 후(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커뮤니티 호텔(LUCKY TEAM)

작업 전(좌), 작업 후(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템이나 사업성과 등에 따라 공간규모를 확장·축소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소규모 공간 개선작업이 잇따르게 된다. DIT 마을재생을 통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여건 변화에 맞춰 수시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DIT 마을재생 교육은 2019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와 와이랩컴퍼니, 츠미키설계시공사가 함께 진행한 ‘DIT 페스타’가 대표적인 예이다. 장기 공실 2개소에 대해 공간별 10인의 참가자가 3박 4일간 함께 공간을 만들어 갔다. 설계내용은 사전에 50%가량만 확정된 후 시공자, 설계자, 운영자, 지역민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논의해가며 작업을 완성했다. 이 과정을 도시재생, 지역혁신 교육에 정규과정으로 도입한다면 많은 곳에서 지속가능한 공간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노동지분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지역 자산화 전략 중 하나로 노동지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노동지분은 지역자산화, 시민자산화 혹은 보조금 사업 진행 시 취약계층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금 대신 노동력을 자본으로 치환하여 지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특히 DIY 공사나 DIT 마을재생 등의 작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각 공정의 난이도와 참여 빈도를 자본으로 치환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해 주는 것이다. 노동지분의 최대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건물 이외에 지역 내 다른 DIT 마을재생 사업에서의 노동도 노동자본으로 인정하여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빌딩을 독려한다. 노동지분을 활용한 DIT 마을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브리스톨의 피쉬폰드 로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매년 안전관리비로 3,000파운드가 소요되고 있던 방치된 시 소유의 학교부지에 브리스톨 공동체토지신탁(BCLT)은 공원과 지불가능 주택을 설립하였고,* 이때 DIT 마을재생방법을 활용했다. 총 12가구 전체가 DIT 마을재생을 통해 입주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노동지분을 배분받았다.

DIT 마을재생의 진행과정에서 참여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노동지분으로 환산하고 이를 공공지원사업의 민간주체 자부담률 완화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집수리, 청년창업,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자부담률은 10~4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자본이 부족한 청년계층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10~40%마저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금융이 아닌 노동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사업 진행 시 DIT 마을재생을 통해 자부담률을 노동지분으로 계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민간공간 재생 시: 자부담률 지원금 기준 10~20%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사업: 자부담률 총 공사비 기준 40%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재생 기금: 자부담률 총 공사비 기준 30%
-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자원사업: 자부담률 총 공사비 기준 30%

세 번째로는 DIT 마을재생을 위한 거점공간인 DIT 메이커스페이스 ‘리빌딩센터’의 보급을 생각할 수 있다. 리빌딩센터는 간단히 ‘빈티지 이케아’라 얘기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폐업, 폐가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벽돌, 벽지, 목재, 타일 등의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 평균 1996년 기준 2만 8,425톤에서 2017년 19만 6,261톤으로 14.5배 증가했다. 2017년 기준 건설 폐기물의 연간 배출량은 7,164만 톤에 달한

* 라이트투빌드 툴킷 홈페이지. <https://righttobuildtoolkit.org.uk/case-studies/bristol-clt/#>(검색일: 2019.10.2.)



포틀랜드 리빌딩센터 내부 전경

출처: yelp 홈페이지. https://www.yelp.com/biz_photos/rebuilding-center-portland?start=60(검색일 : 2019. 8. 3.)

다. 한편 우리나라는 목재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연간 발생하는 폐가구류의 약 33%만 합판이나 목재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약 59%는 소각, 나머지 8%는 방치·투기되고 있다.* 최근 빈티지 인테리어, 뉴트로 인테리어, 인터스트리얼 인테리어의 영향으로 다양한 폐건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원형 그대로의 폐가구를 수거, 처리, 유통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빈티지 가구는 동남아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빈티지 가구 및 DIY용품, 소품의 대표적 유통거점으로 서울의 동묘와 황학동이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재개발, 재건축, 폐업이 발생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가구, 폐건자재를 다시 지역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거점이 부재한 상태이다. 미국 포틀랜드와 일본 나가노에서는 리빌딩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폐가구, 폐건자재의 복원과 업사이클을 통한 지역 내 마을 재생 생산거점을 조성했다. 리빌딩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1997년 설립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포틀랜드의 리빌딩센터는 매년 1,800톤의 폐건자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건축자재의 복원과 업사이클을 통해 각 용품을 시중가격의 40~90%가격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150개소의 지역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DIY 교실을 통해 200개의 목공, 전기, 배관 관련 DIY교육을 수행한다. 2,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40개의 지역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1,240건의 건물 철거

* 환경부(2015, pp.2~4)

** 동묘하다. 나영규 대표 인터뷰(2019.10.3.)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건물 철거 후 폐가구, 폐건자재를 복원, 업사이클링 후 분류하여 이케아의 빈티지 버전으로 빈티지 인테리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핸드메이드 어버니즘을 기대하며

인구감소 성숙도시에서 의식주의 재편 중 공간을 짓는 방식으로 ‘함께 짓는 DIT 마을재생’을 제안했다. DIT 마을재생은 최근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메이커운동의 건축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크 해치는 메이커운동 메니페스토를 통해 메이커 운동을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이라 정의했다. 메이커운동은 손으로 만드는 문화 위에 미디어와 기술을 등에 업고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건축에서도 3D 프린터, SNS,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활용한다면 자신만의 공간을 어디서든 쉽게 함께 만들고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짓는 즐거움을 되찾은 밀레니얼, Z 세대 지은이들은 자기의 취향에 꼭 맞게 공간을 바뀌어나가고 그 방법과 과정을 SNS에 공유·확산하는 방식으로 한땀한땀 함께 짓는 핸드메이드 어버니즘을 퍼트릴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경훈. (2017).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현황 점검. 4.
- 2 김은경. (2017). 창업기업 73%가 5년내 폐업...소상공인이 98% 차지. 연합뉴스. 10월 12일 기사
- 3 김하나. (2018). 커피숍 창업비용 ‘평균 1.2억원’...“인테리어비 가장 높아”. 한국경제. 5월 10일 기사.
- 4 동묘하다. 나영규 대표 인터뷰(2019.10.3.)
- 5 라이트투빌드 툴킷 홈페이지. [https://righttobuildtoolkit.org.uk/case-studies/bristol-clt/#\(검색일 2019.10.2.\)](https://righttobuildtoolkit.org.uk/case-studies/bristol-clt/#(검색일 2019.10.2.))
- 6 손해용. (2019).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첫 1000만 가구, 비율 50% 돌파. 중앙일보. 8월 29일 기사.
- 7 어셈블. Jane Hall 대표 인터뷰(2019.7.1.)
- 8 윤효원. (2019). 자영업자 안 줄이면 ‘고용쇼크’ 발생한다. 프레시안. 6월 21일 기사.
- 9 장형우. (2016). 쪼그라든 2030 지갑... 청년 가구소득 처음 줄어. 서울신문. 3월 8일 기사.
- 10 최승진. (2012). 창업자금 빚이 40% 넘으면 위험. 이데일리. 3월 12일 기사.
- 11 퇴사학교 브런치 홈페이지. [https://brunch.co.kr/@t-moment/13\(검색일: 2019.10.11.\)](https://brunch.co.kr/@t-moment/13(검색일: 2019.10.11.))
- 12 환경부. (2015). 폐가구 발생 및 수거·유통 체계에 관한 연구. 2-4.
- 13 yelp 홈페이지. [https://www.yelp.com/biz_photos/rebuilding-center-portland?start=60\(검색일: 2019.8.3.\)](https://www.yelp.com/biz_photos/rebuilding-center-portland?start=60(검색일: 2019.8.3.))